

도내 기업 58% “하반기 채용계획 있다”

48.5%가 “작년 수준 이상으로 채용계획”... 고용 형태로 82.5%가 ‘정규직’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60만명 이상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북지역 기업들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하반기 인력채용 계획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주·익산·군산·전북사남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광섭)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157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전북지역기업 인력 채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58.0%가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다

고 밝혔다.

또 48.5%가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고용 형태로는 82.5%가 정규직 형태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인력 채용 시기로는 ‘수시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인력 채용의 이유가 자연적인 인력감소에 따른 충원(53.7%)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예정 분야로는 ‘생산직’이 49.0%로 가장 많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생산직

(65.2%), 비제조업은 ‘기술직 및 연구직(34.5%)’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도내 기업들은 ‘현재 회사 인력이 충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기업의 36.8%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향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때문과 업황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23.7%, ‘인건비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13.2%로 조사됐다(복수응답).

또한 우리지역 기업들 중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지 못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전체 응답기업의 32.0%가 ‘기업에

서 원하는 능력을 갖춘 지원자 부족’을 지적한 가운데, ‘임금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26.4%, ‘합격자의 입사 포기 혹은 조기 퇴사’ 20.8%, ‘회사 소재지의 지역적 여건’ 11.9%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타의견으로는 구직인원의 부족 문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꼽은 다수의 기업들이 나타났다(복수응답).

아울러 도내 기업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지원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38.8%가 임금보조 및 복리후생 지원 확대를 요구했으며, ‘고용증가 기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가 30.1%,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12.0%,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0.5%, ‘탄력근로제 활용 등으로 추가 고용 유도’ 4.0%,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2.2% 순으로 나타났다.

윤광섭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우리 지역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일자리를 늘리는데 일조하고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정규직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고용 증가기업에게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들을 위해 임금보조 및 복리후생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LX 마스코트 ‘랜디’ 랜디쓰데이’ 서 시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 마스코트 ‘랜디’가 동명 캐릭터 SSG랜더스 랜디와 첫 시구에 성공하면서 야구기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로야구단 SSG랜더스(대표이사 민경삼·SSG)의 마스코트 ‘랜디’와 ‘랜디’ 인증을 한 LX공사의 ‘랜디’가 지난 13일 SSG랜더스의 홈경기 이벤트 ‘랜디쓰데이’에서 시구로 멋진 데뷔를 했다.

이날 랜디는 멤버십 게이트로 입장하는 관중들을 맞이하고 선착순으로 랜디가 새겨진 기념품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귀여운 팬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LX공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LXTV’가 이날의 후끈후끈한 현장을 촬영했다. 또한 경기시작 전 네이버 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SSG랜더스의 랜디속 프리뷰쇼에서는 양 사 마스코트를 소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안내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농·축협 신규직원 도시채용 시험 실시

내달 초 최종합격자 발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13일 전주 영생고등학교에서 2021년 농·축협 신규직원 도시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필기시험은 인·적성 및 직무능력 검사로 이루어졌으며, 1차 서류 및 온라인 인·적성 합격자 543명이 응시했다.

시험장에서는 시험 전·후 방역소독과 질병관리청 고시방역지침에 따른 철저한 방역절차가 이뤄졌다. 전북농협은 이날 고사장 출입구를 단일화해

문진표 작성 및 발열 검사 등 출입 절차를 강화했으며, 응시자와 감독자 등 관련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지역 인재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농업·농촌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이끌어 나갈 정예요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규직원 도시채용은 이번 필기시험에 이어 25일 면접을 실시하고 7월 초에 최종합격자를 선발·발표한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13일 전주 영생고등학교에서 2021년 농·축협 신규직원 도시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올 연말 완료 목표 방재숲 조성 설계방향 ‘식재 수종 선정·시설물 설치 계획 중요’

새만금개발청, 자문회의 개최... “비산모래 차단 효과”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의 설계방향을 모색하는 자문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비산모래에 직접 노출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새만금 배후지역(부안군 불등마을 등 4개소) 인근에 방재숲을 조성하는 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며, 성공적인 해안 방재숲 조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전북대학교, 순천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업 관계자들과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방재숲은 강풍과 비사, 비염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해안

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약 70% 감소시켜 비산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해안 방재숲 조성을 위해서는 식재 수종의 선정, 토양개량 및 식재 기반 조성, 방풍책 등 시설물 설치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방재숲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 해안 숲의 다양한 나무와 숲이 어우러져 미래 친환경 마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노유진 국제도시과장은 “비산모래로 인한 마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재숲 조성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지역 주민이 새만금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서부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은 지난 11일 순천국립관리소에서 5개 국유림영림단과 공공산림기부기업 참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실행요령 등과, 교육사와 전 산림

사업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사고 결의문 낭독을 통해 산림사업 재해예방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한편, 조준규 청장은 “작업자의 안전의식 변화를 위한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해 재해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은퇴고객 자산관리 ‘맞손’

전은-미래에셋, 금융교육·연금상품 상호 협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0일 미래에셋투자자산관리센터와 은퇴금융 교육 및 연금상품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으로 은퇴를 위한 한 차원 높은 노후설계 및 연금 솔루션을 제공하며, 누구라도 편리하게 전북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 지

점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국내 대표 동물용 의약품 기업, 정읍에 ‘등지’

케어사이드, 전북도·정읍시와 첨단산단 400억 투자 협약 체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용 의약품 전문회사인 (주)케어사이드가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 400억원을 투자한다.

정읍시와 전북도 (주)케어사이드는 14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 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우범기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주)케어사이드 유영국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케어사이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3만4,310㎡ 부지에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하고 생산 시설 등을 갖춘다.

또 지역인재 고용 등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투자행 등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와 전북도는 투자보조

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성남시 라이온밸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케어사이드는 지난 2002년에 설립됐다.

20여년 동안 오로지 반려·산업 동물용 의약품 사업에 전념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용 의약품 전문회사로 성장했다.

연 매출 420억, 영업이익 138억, 매출 성장률 50%를 기록하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다.

특히 동물용 의약품 국내 총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조2,040억원이며 매년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전망이 좋은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유진섭 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용 의약품 기업이 우리 정읍에

등지를 틀게 된 것을 11만 정읍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정읍 대표하는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영국 대표는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환영해 주신만큼 동물용 의약품의 선두주자로서 대한민국 대표기업을 넘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신정동 일원에 80만 6,321㎡ 규모로 조성된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역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세제 혜택과 직접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다.

현재 2개 기업이 운영 중이고 4개 기업이 신축 중이며 분양계약 5개, 투자협약 7개 기업 등 81.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파티마시협, 경제교육

‘현명한 금융생활’ 진행

신협중앙회전북지부(본부장 김영하)는 지난 10일 전주파티마시협(이사장 양춘제)이 전주파티마시협 혁신지점 문화공관에서 신협 어부바 멘토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제교육(현명한 금융생활)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명한 금융생활 교재를 활용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전주파티마시협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화폐의 발달과정과 계획에 맞춰 합리적인 경제생활습관을 익히는 용돈사용법을 설명해, 아이들 스스로 기록하면서 소비와 저축생활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공했다.



전주파티마시협 혁신지점에서 열린 경제교육.

앞서 전주파티마시협(이사장 양춘제)은 지역아동들과 1박 2일 동안 경제교실을 운영한 바 있으며, 아동들이 경제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대면 경제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파티마시협 양춘제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지식을 쌓아 향후 사회 진출과 밝은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비대면 경제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내달 30일까지 ‘경제총조사’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이 오는 7월 30일까지 호남지역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경제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대규모 경제총조사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산업변화 트렌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업체, 1인 미디어 등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했으며, 응답 부담을 낮추고 조사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체의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종사자 수, 사업실적 등 전 산업 공통항목 13개와 세부 산업별로 배달판매 여부, 디지털 플랫폼 거래여부 등 24개 특성항목으로 구성되며, 조사결과를 내년 6월에 발표된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여름철 콩·팥

털밭 재배 관리요령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여름철 털밭에서 기르기로 좋은 우리 밭작물로 콩과 팥을 추천하고, 털밭 재배 관리요령을 14일 소개했다.

콩과 팥은 재배가 어렵지 않아 여름철 털밭에서 키우기 좋은 작물이다.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잘 자라 아이들과 함께 심고 키울 수 있으며, 수확한 콩과 팥은 건강 기능성 성분이 풍부해 차로 만들어 마시기도 좋다.

콩, 팥 씨앗은 색이 분명하고 크기가 일정할 것으로 골라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심는다. 흙을 갈기 전 콩복합비료를 99㎡(약 30평)에 5kg 정도 고르게 뿌리고 흙을 갈면서 자연스럽게 흙과 섞이도록 해야 한다. 흙갈이는 약 15cm 깊이까지 부드럽게 하고 60~70cm로 두둑을 쌓는다. 한 자리에 두 세알을 2~3cm 깊이로 심는데, 이때 씨알이 안 보일 정도로 심고 간격은 15~20cm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물주는 씨 뿌린 당일 충분히 주어 한다. 씨가 트고 뿌리가 충분히 내릴 때까지는 2~3일에 한 번, 뿌리가 충분히 내린 뒤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준다. 꽃이 피고 꼬투리가 달린 후 60일이 지나면 수확할 수 있다. 꼬투리 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떨어지는 식물체 전체가 마르면 수확한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박기도 과장은 “여름철 털밭에 콩과 팥을 재배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리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